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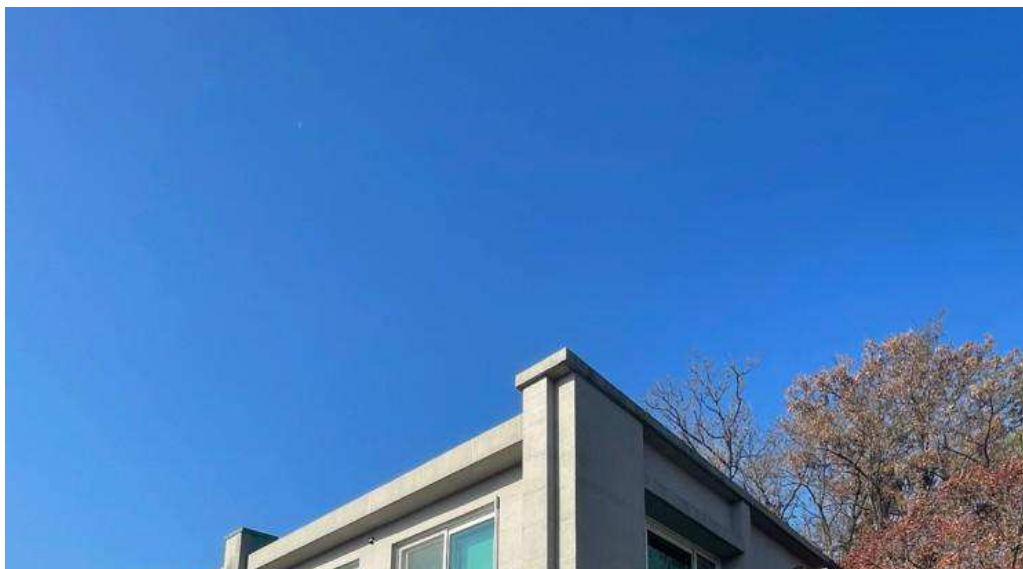
---

#상명대학교 #계당기념관 #박물관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11기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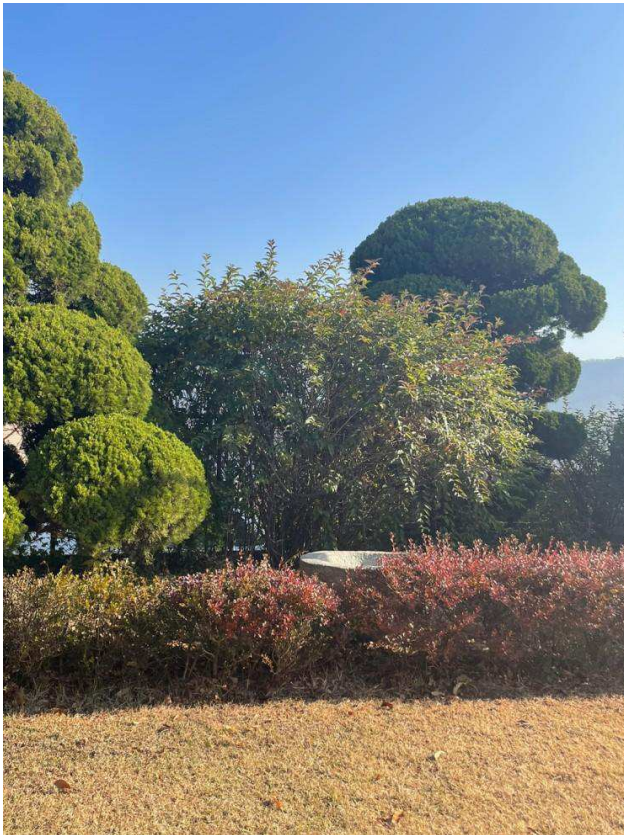
오늘은 상명대학교 안에 있는 계당기념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날 하늘도 파랗고 단풍도 예쁘게 피어있어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졸업사진을 계당기념관 앞에 있는 들판에서 찍었어서,  
포스팅하러 가는 길에 기억에 많이 남더라구요.



그럼 사담은 이쯤하고 본격적으로 계당기념관을 보고 온 후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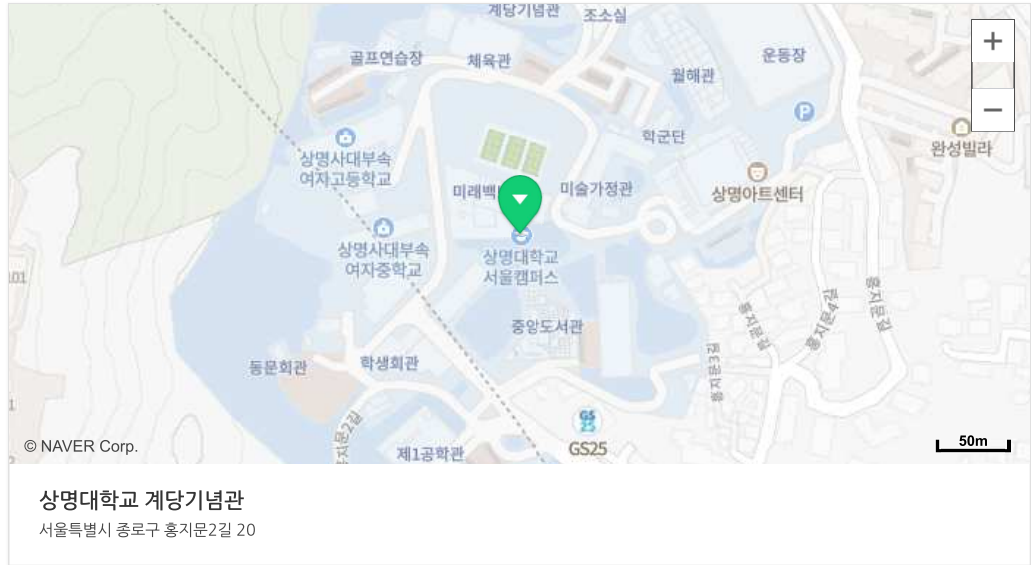
# 상명대학교 계당기념관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17시

(※ 하계 방학기간 : 오전 10시~15시)

-관람료: 무료

-위치:



-홈페이지: <https://museum.smu.ac.kr/>

-연락처: TEL: 02-781-7920

-가는 방법

종로 13, 서대문 08, 7016 버스를 통해 상명대학교 정거장에서 내려, 도보를 이용하여 와주세요합니다.

계당기념관은 상명대 캠퍼스의 꼭대기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신 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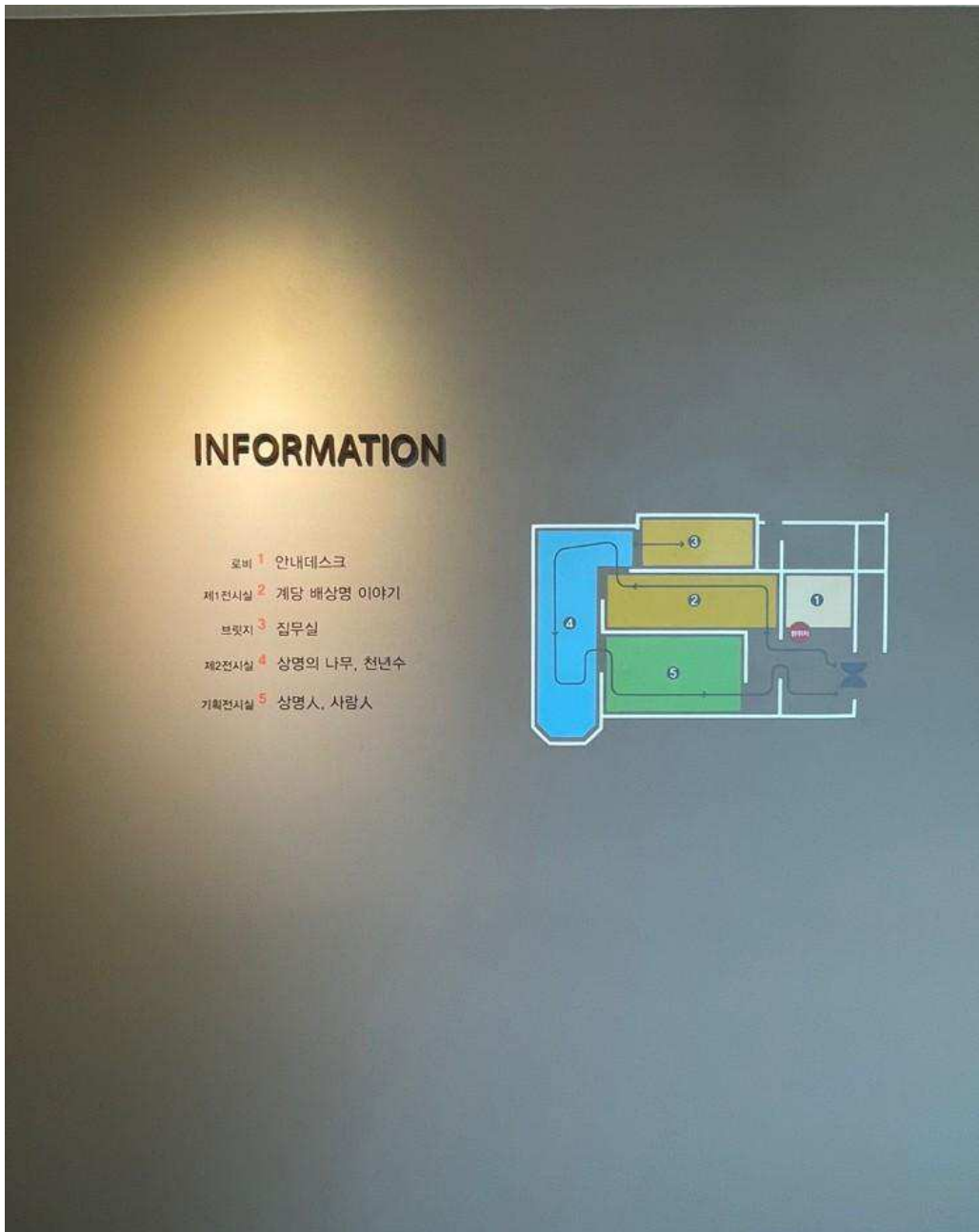
#### -계당기념관 소개

계당기념관은 상명학원의 설립자인 故 계당 배상명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교육구국의 큰 뜻을 품고 평생을 헌신하신 선생의 교육적 소식을 계승하기 위하여 1986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995년 상명대학교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유품과 문화재가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수년에 걸친 수집 및 정리 작업이후, 2013년 9월부터 「계당배상명기념관」으로 새로이 개관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실용적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설립자 및 학교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연구하는 통합적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당기념관」으로 명칭을 재변경했습니다.

계당기념관은 계당 배상명 선생님의 삶과 상명학원의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는 3개의 전시실과 영상 매체를 통해 재현한 선생님의 집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선생의 귀중한 자료들과 다양한 학교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명학원의 창학 정신을 기반으로 상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교육 연구의 통합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념관은 설립자가 공관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설립자 유품을 비롯하여 상명학원의 다양한 학교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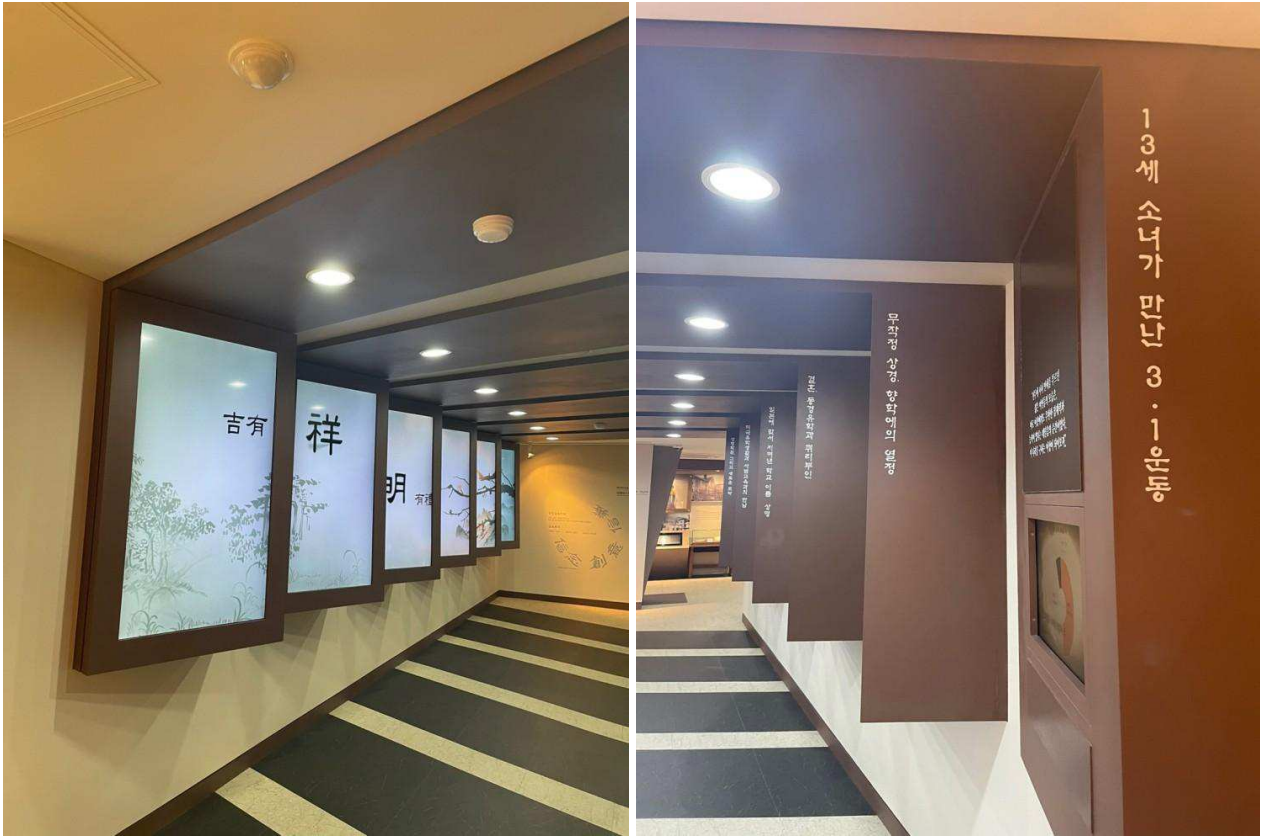
이 기념관은 계당 선생님이 공관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평생토록 수집한 각종의 서화, 도자기, 민예품 등과 故 소연 방정복선생이 헌납한 문화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상명대학의 또 다른 박물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계당기념관의 위치 안내도입니다.

제 1전시실인 계당배상명이야기에서는 배상명 선생님의 생애와 발자취가 담겨있습니다.



3. 1운동에서 젊은 여인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본 배상명 선생은 식민지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계셨던 배상명 선생님의 견해를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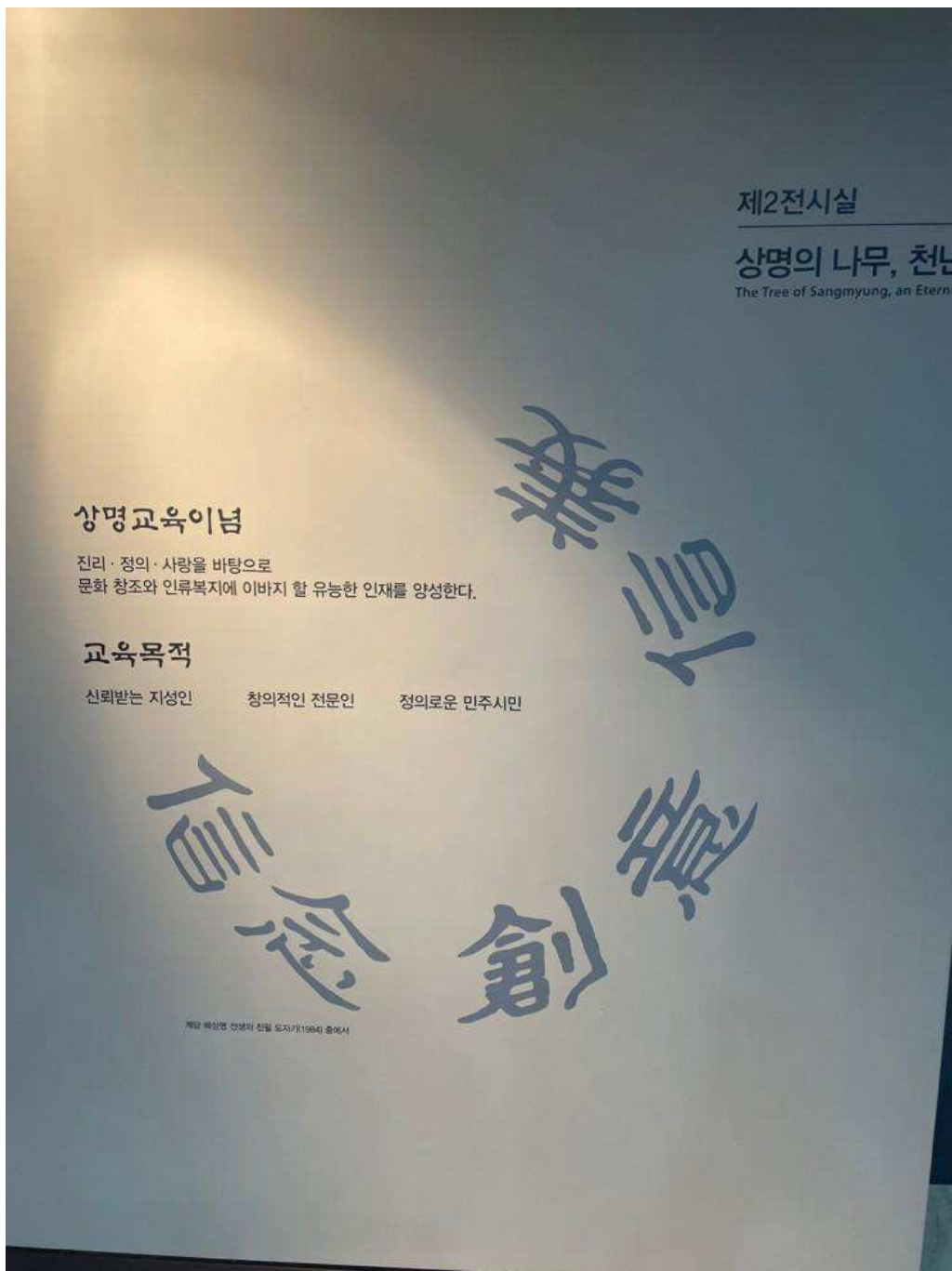
다음 사진은 연도에 따른 배상명 선생님의 발자취입니다.





다음은 제 2전시실인 상명의 나무, 천년수입니다.

상명의 교육 이념인 진리 정의 사랑을 바탕으로 문화창조와 인류복지에 이바지 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레바퀴 교육이론을 아시나요? 수레는 두개의 바퀴 크기가 같아야 잘 구를 수 있습니다. 배상명 선생님은 이러한 수레바퀴 같이 한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크기, 속도 방향이라는 면에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수레바퀴이론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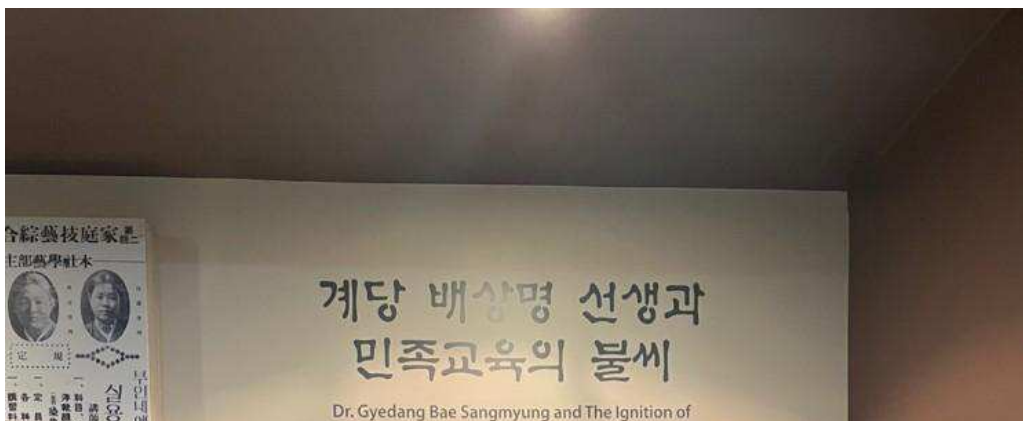
00:00 00:15

자동

수레바퀴이론



다음은 계당배상명 선생님의 교육관을 담은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의 선두에서 앞장섰던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여성교육 Women's Education

상정학원의 태동은 일제시기를 지내왔던 계당 배삼형 선생의 민족적 현실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선생은 민족의 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자주 독립을 이루려는 길은 낙후되어 있는 민족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31 만세운동은 선생으로 하여금 가정과 남성에 익숙되어 있는 여성들의 진정한 힘을 고요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다. 이 같은 선생의 견해와 신념은 그녀를 단순한 여권 운동가가 아니라 여성 교육자, 나아가 민족지도자로서의 길로 충신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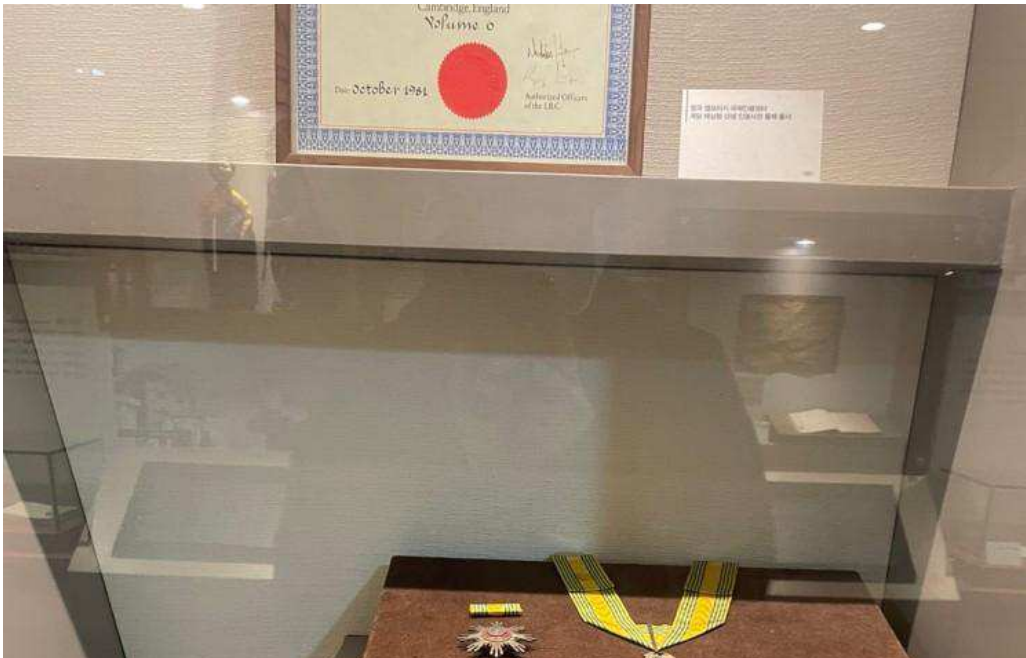




제가 나온 학교 역시 상명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인만큼 상명대학교가 사범교육에 특히 더  
 눈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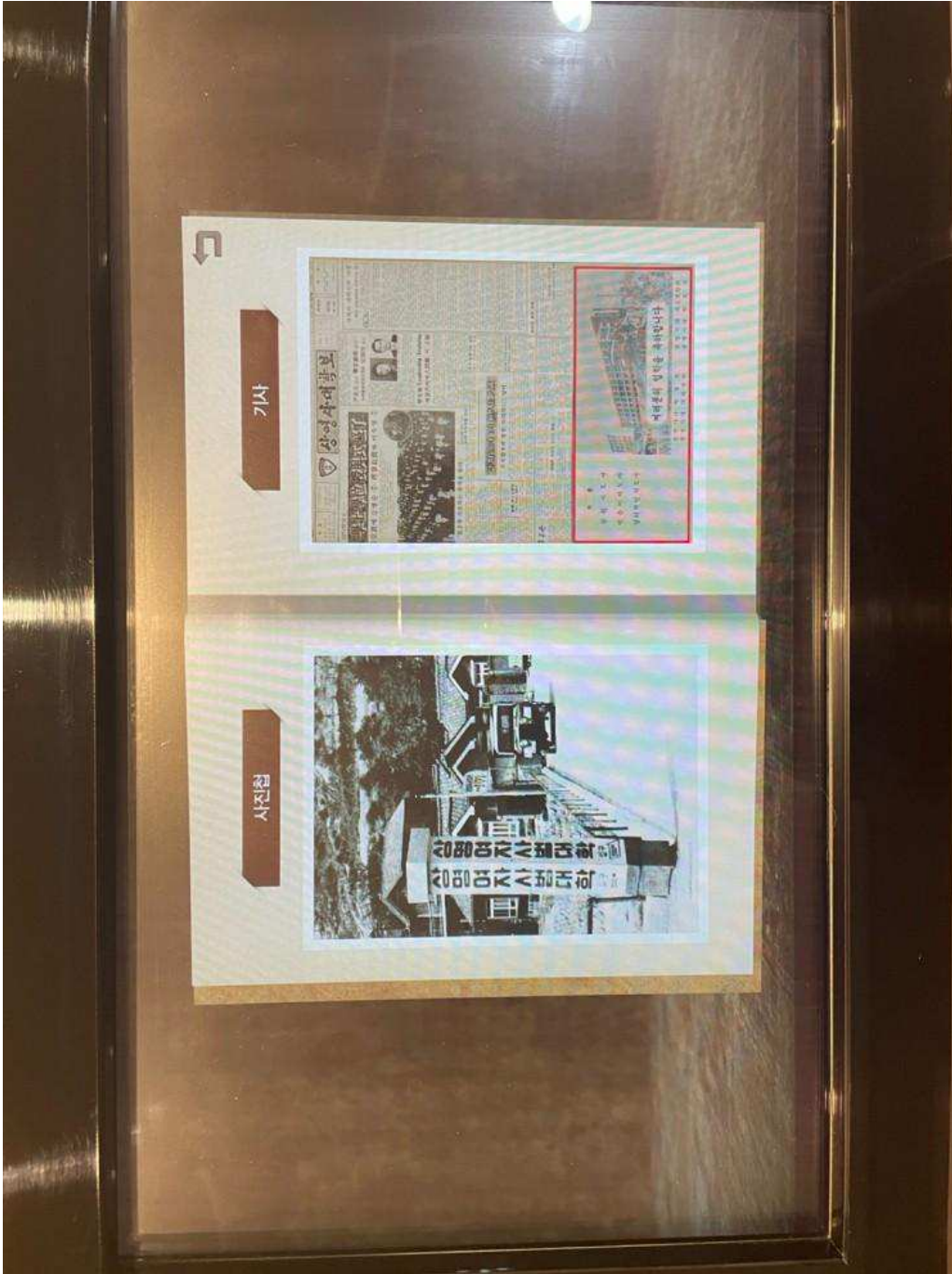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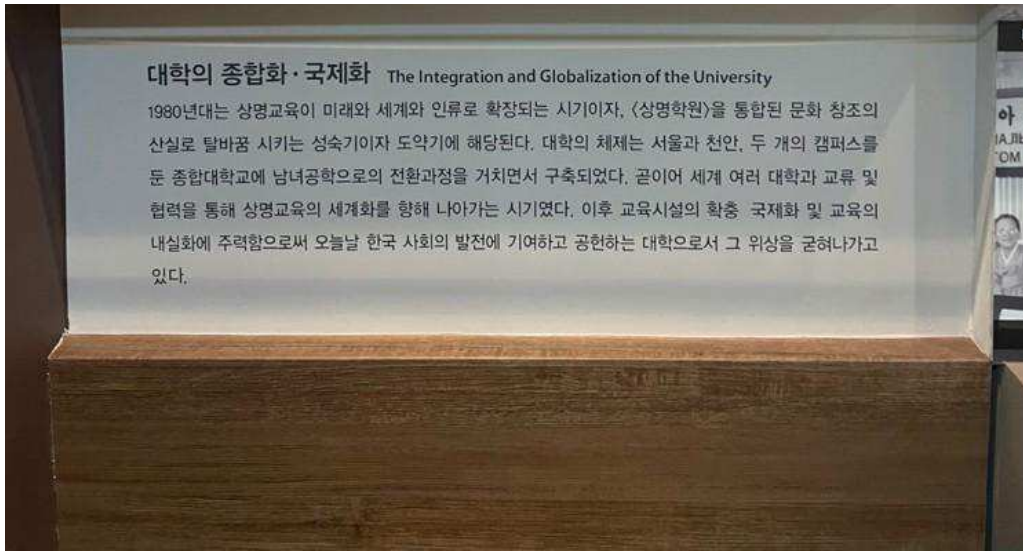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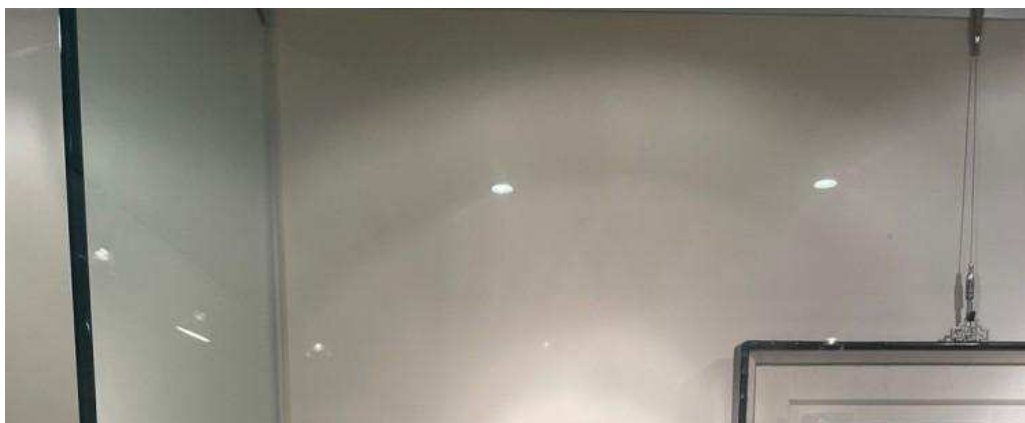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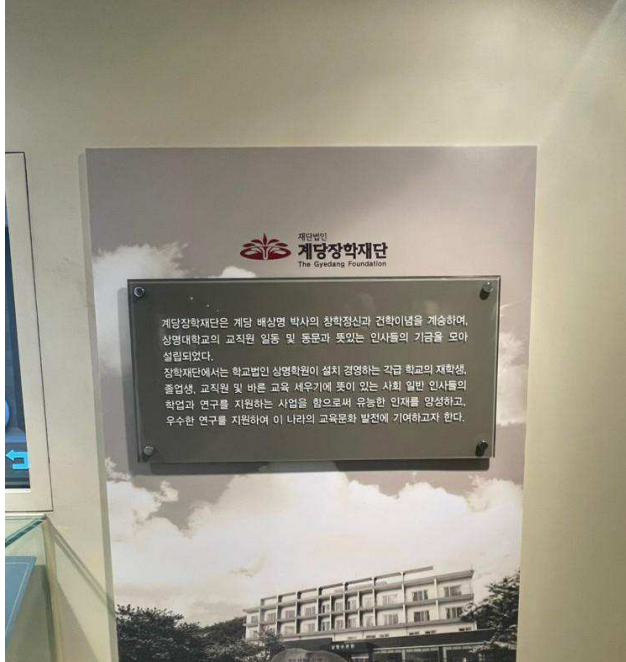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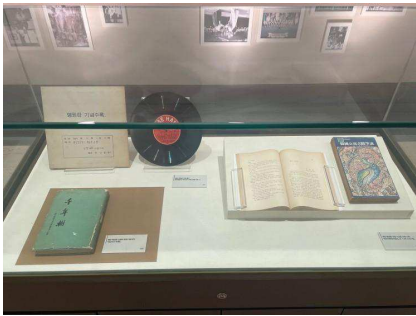
다음은 배상명 선생님과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소중한 유산이 담긴 기획전시실, 상명 人, 사람 人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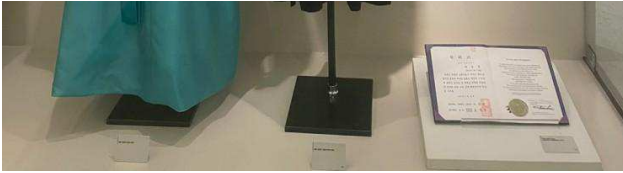


상명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상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가을의 계절감이 짙게 느껴지는 시기에 가서인지 상명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와닿았습니다.





또, 마지막 모니터에서는 사진자료와 정기간행물, 명단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정기간행물을 선택해서 보았는데 상명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의미있었습니다.

계당기념관을 처음 방문해봤는데요, 상명의 역사와 배상명 선생님의 일생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기획전시실에서 하고 있는 상명 인, 사람 인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작품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뜻 깊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11기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박물관**  
SANGMYUNG UNIVERSITY MUSEUM

# 제11기 블로그 기자단